

박미선, 1년6개월 만 공식 복귀…"재밌는 것 하고파"

등록 2026.05.08 17:21:18



[서울=뉴시스]박미선(사진=유튜브 캡처) 2026.05.08.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 남정현 기자 = 코미디언 박미선이 1년 6개월 만에 공식 복귀를 알렸다.

8일 유튜브 채널 '미선임파서블'에는 '1년 6개월 만에 미선 보스 다시 복귀합니다'라는 제목의 영상이 게재됐다.

박미선은 채널명을 원상 복구한 이유에 대해 "요원(구독자)들이 소속감이 없으니 되게 서운해 하는 것 같더라"고 설명했다. 박미선은 유튜브 채널명을 2024년 10월 '미선임파서블'에서 '마미선'으로 변경한 바 있다.

그는 "'미선임파서블'을 (다시) 할까 말까 되게 고민을 많이 했다. 너무 쉬었고, 한 번 건강을 잃고 나니 하지 말아야 되는 것들이 생긴다"고 했다.

앞으로의 계획에 대해서는 "나는 그냥 재밌는 것을 하고 싶다. '가족오락관' 같은 단순하고 심플한 것(을 하고 싶다)"고 했다.

또 제작진이 최근의 취미를 묻자, 그는 "BTS"라고 답했다. 그러면서 "몇 년 됐는데 공연 보고 완전 반했다. 잘하더라. 내 인스타그램에 뷁가 '좋아요'를 눌러줬다는데, 못 찾았다"고 아쉬워했다.

박미선은 또 영상의 설명란을 통해 "요원들 안녕. 오랜만이야. 잘 지냈어? 많이 기다렸지. 기다려 줘서 진짜 고마워. '미선임파서블'이 다시 돌아왔다"고 했다.

아울러 "예전처럼 자주 못 올 수도 있지만, 건강이 허락하는 한 계속 찾아올게. 앞으로도 우리 같이 재밌게 놀자, 요원들"이라고 덧붙였다.

앞서 박미선은 2024년 12월 유방암을 진단받고 최근까지 투병해 왔다.

지난해 11월 tvN 예능프로그램 '유퀴즈 온 더 블럭'에 나온 박미선은 건강이 많이 회복됐다면서도 "완쾌라는 말을 쓸 수 없는 유방암"이라고 말한 바 있다.

그는 다음 달 방송 예정인 MBN 예능프로그램 '불타는가(家)'의 MC로 방송 복귀를 알린 바 있다.

©공감언론 뉴시스 nam_jh@newsis.com

Copyright © NEWSIS.COM,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